



개봉동 입구의 길은

삭막한 도시 문명

한 송이 장미 때문에 왼쪽으로 굽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명.

굽은 길 어디에선가 빠져나와

본연적 생명에서 벗어난 현대 문명.

장미는

길을 제 혼자 가게 하고 의인

아직 흔들리는 가지 그대로 길 밖에 선다.

현대 문명에 의한 상처, 흔들림. 삭막한 도시 문명에 휩쓸리지 않은 장미의 순수함.

⇒ 삭막한 도시 문명에서의 순수한 장미의 생명력

보라 가끔 몸을 흔들며 명령법

시선의 집중, 강조

있들이 제 마음대로 시간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자유롭게 은유, 시간을 초월한 순수한 세상으로의 기억.

장미는 이곳 주민이 아니어서 의인

개봉동에 거주하는 도시인

시간 밖의 서울의 일부이고, 역설

삭막한 문명을 벗어난 순수함

그대와 나는

청자 화자 --> 현대인들

사촌(四寸)들 애기 속의 한 토막으로

세속적 삶의 일부분으로

비 오는 지상의 어느 발자국에나 고인다. 시각적

부정적 현실 상황. 어느 곳에서도. 도시 문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슬픔(눈물)의 구체화

⇒ 장미와 다르게 삭막한 문명 속에서 힘겹게 사는 현대인들

말해 보라 명령법

↳ 순수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무엇으로 장미와 닿을 수 있는가를.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명력 회복에 대한 염원.

저 불편한 의문, 저 불편한 비밀의 꽃 반복

순수함을 찾을 수 없는 현실, 장미의 신비로움 강조.

장미와 닿을 수 없을 때,

순수한 삶을 회복하지 못하는 현실

두드려 보라 개봉동 집들의 문은 명령법

현대인의 삶.

어느 곳이나 열리지 않는다.

단절되고 고립된 현대인의 삭막한 삶.

⇒ 장미와 같은 순수한 생명력의 삶 소망



갈 래 : 자유시, 서정시

성 격 : 문명 비판적, 주지적, 상징적, 대조적

긍정적 시어 : 장미(순수한 생명)

부정적 시어 : 개봉동(단절되고 고립된 삭막한 현대문명)

주 제 : 생명을 통한 현대 문명의 비판

특 징 : '장미'와 '개봉동'의 대립적 의미 구조, 명령법의 사용을 통한 현대인의 각성 촉구.

해 설

이 시는 이질적인 두 존재인 '개봉동'과 '장미'를 한 자리에 공존시켜 양자 사이의 내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여기서 '장미'는 순수와 신비와 아름다움과 생명을, '개봉동'은 공장과 도시와 문명과 공해의 표상이다. 그러므로 이 시는 순수한 삶을 훼손·파괴시키는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동시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알려 주고 있다.

첫째 연에서 '길을 제 혼자 가게 하고 / 아직 흔들리는 가지 그대로 길 밖에' 서 있는 장미를 뒤이어 보여 줌으로써 장미가 개봉동의 길에 흡수되지 않고 순수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형상화 하였다. 이 '장미'가 '개봉동' 주민으로 섞일 수 있는 한편, 서울 속에 피어 있으면서도 서울 밖의 존재, 즉 순수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역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같은 공간에 존재하면서도 서로 다른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모순된 삶의 모습을 '개봉동'과 '장미'라는 이질적인 두 존재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표상인 장미야말로 이 시대 인간들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삶의 세계이며, 그러한 세계를 수용하거나 만나지 않는 한, 우리 시대의 막힌 문들은 절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